



한창훈씨

문학동네/A5신/294면/8000원



한창훈씨(38)의 《세상의 끝으로 간 사람》(문학동네)을 읽고 있으면, 사방이 적막해진다. 그 적막함은 마치 물 속에서 물 밖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소설 바깥이나 소설 안의 소음들을 모두 아련하게 만들어버린다.

그의 문장이 빚어내는 적막함은 주인공의 내적 독백형태로 드러나는 서정적인 문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한창훈의 문장이 만들어내는 내적 독백은 자주 과거의 시간과 과거의 사람을 불러들임으로써 현재의 시간을 몽똥그러버리기도 한다. 그러므로 현재에서 인물들이 나누는 대화마저도 이 현재와 과거가 버무려진 문장 안으로 끼어들면 구체적인 시간이 지워지고 아련한 것이 되고 만다.

“잠이 덜 깨, 거름 속의 나락 잎새 같은 기분 이면서도 어렸을 적 집 대밭에 나는 서 있다. 너는 죽었는가. 저렇게 숨을 막 몰아쉬고 있는데. 으음. 나는 신음소리만 낸다. 죽어 있는 것이 살아나지 않는다. 여자가 내 오른 손을 끌어 자신의 아랫도리, 까슬거리는 터럭에 댄다.”(《지상에 남은 마지막 밤》)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의 발견

한창훈 소설의 화자들은 “생활은 이제 폐허로 가득한” 세상에 대해 절망하고 “세상의 끝”으로 내몰린 사람들이다. 이제 그들은 현실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절망하고 있다. 그의 문장들은 그러므로 이들의 내면을 흐르고 있는 셈인데, 그 내면의 흐름 속에서 소음도

시간도 흡수되고 한데 버무려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이런 문장에 귀 기울여보면 입이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아닌 여성적인 부드러움에 기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성 안에 내재된 여성성의 목소리라 할 수 있겠죠. ‘강한 남성’의 이데올로기는 남성 자신에게마저 상처를 입히곤 하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 인간으로 봐야 해요. 남성이 여성의 몸의 일부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 안의 여성성을 발견해내고 인정해야 하는 시점인 거죠.”

그의 소설의 주인공들은 단지 자신의 내부에서 여성적인 목소리를 발견해내는 것뿐 아니라 여성의 몸의 이미지를 그들의 문장에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여성에게 의지하고 있다. 《지상에 남은 마지막 밤》의 누이나 《번태》의 술집여자, 《뚝 낚는 어부》의 잠녀들이 그런 여성들이다. 이들은 모성으로 충만해 있고 주인공들의 상처를 따뜻하게 감싸안아 주는 인물들이다.

그의 소설에서 여성성은 물의 이미지로 드러나기도 한다. 그것은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이기도 하고(《지상에 남은 마지막 밤》) 고여 있는 호수기도 하고(《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흘러가 고자 하는 강물(《강물은 흘러 어디로 가는가》)이기도 하다. 한창훈의 문장이 적막한 것은 그의 문장이 이 물의 내면을 끌어안고 흘러가기 때문이기도 하다.

절망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더욱 극대화된다. 이 소설의 주인공들 또한 그들이 마지막에 의지하고자 했던 여성의 죽음, 즉 모성성의

훼손으로 더욱 극대화되는 절망을 체험한다. 삶의 마지막 의지처마저 허물어져버렸을 때 이제 그들이 기대야 할 곳은 어디인가?

바다, 세상과 사람의 몸이 이어지는 통로

한창훈은 절망의 극단에 이른 그들에게 바다를 보여준다.

“바다가 내 앞에 있다. 거친 산맥과 가없는 평원, 굽이치는 강물과 거친 바람과 뜻하지 않은 돌풍, 뜨거운 햇살, 차가운 공기를 헤뒀던 모종의 시간이 지나 마침내 다다른 끝, 한토막 삶의 끝,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곳에 이르니 바다가 있다.”(《지상에 남은 마지막 밤》)

그러나 바다는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원이고 자궁이다. 한창훈의 주인공들이 비록 죽음으로 바다를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바다는 그 죽음마저 그 드넓은 가슴에 감싸안아 준다. 바다는 여성성의 최상의 형태다. 한창훈의 소설이 절망을 절망 그대로 보여줌에도 그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고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제가 처음 소설을 쓸 때도 그렇고, 소설을 쓰기 전부터 제 이야기의 시작은 바다였습니다. 바다에서 살았고 거기서 늘 대면하게 되는 것도 바다였으니까요.”

바다는, 말하자면 그의 소설이 태어나고 성장해온 터전인 셈이다. “세상의 끝으로 간” 사내도 바다의 거대한 모성, “세상과 사람의 몸이 이어지는 통로” 앞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는 것이다.

- 김장근 기자